

2019년 2월 2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여파로 하락

### 경제지표 위축, 실적 부진 Vs.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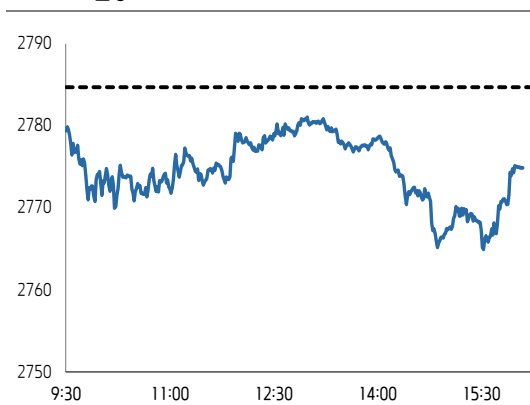
미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출발. 한편, 미·중 무역협상 관련 MOU 작성 소식 전해졌으나,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내용은 없다” 라고 언급 한 점도 부정적. 이런 가운데 장중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FANG 기업들에 대한 매물 출회되며 재차 낙폭 확대(다우 -0.53%, 나스닥 -0.39%, S&P500 -0.35%, 러셀 2000 -0.39%)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매물 출회. 최근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 트럼프는 이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 등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GDP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 하다고 발표.

여기에 부정적인 경제지표 발표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를 높임. 미국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하고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6% 위축.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2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전월(17.0) 수치는 물론 기준선(0)을 하회한 -4.1 로 급락. 특히 신규주주(21.3→2.4)가 크게 감소하는 등 세부 항목도 부정적. 더불어 제조업 PMI(54.9→53.7)와 기준주택판매(mom -1.2%)도 둔화. 이 여파로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을 1.5%로 전망 했으며, 뉴욕연은도 Nowcasting 을 통해 1 분기 GDP 성장률을 1.08%로 전망

1 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주식시장은 상승이 제한. 그러나 기업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발표했던 미·중 관세 발효, 달러 강세 등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 조정폭 또한 제한. 그러다 보니 최근 미 증시는 지수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이 이어지는 증폭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28.66	-0.05	홍콩항셱	28,629.92	+0.41
KOSDAQ	747.33	-0.45	영국	7,167.39	-0.85
DOW	25,850.63	-0.40	독일	11,423.28	+0.19
NASDAQ	7,459.71	-0.39	프랑스	5,196.11	+0.00
S&P 500	2,774.88	-0.35	스페인	9,191.20	+0.11
상하이종합	2,751.80	-0.34	그리스	677.17	+0.84
일본	21,464.23	+0.15	이탈리아	20,209.72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바이오주 부진

바이오젠(-4.17%)는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 심화 우려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 되자 하락 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2.13%), Vertex(-2.54%) 등도 동반 하락 했다. CVS 헬스(-2.91%)는 전일에 이어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에브비(-1.56%), J&J(-0.68%) 등 여타 헬스케어 종목도 동반 하락 했다. 도미노피자(-9.15%)는 부진한 실적 우려로 급락했다. 엑손모빌(-0.90%), 셰브론(-0.95%), EOG리소스(-3.47%)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과 실적 둔화 여파로 부진 했다.

알파벳(-1.46%)은 AT&T가 유튜브 광고를 재개한 가운데 부정적인 광고 옆에 자사의 광고가 게시 되었다며 광고 중단을 발표하자 하락 했다. 페이스북(-1.55%)도 동반 하락 했다. 반면, 랜터카 회사인 Avis Budget(+17.14%)는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 했다. MS(+2.11%)는 모건스탠리가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코카콜라(+1.69%)는 분기 배당금을 2.6%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2%	대형 가치주 ETF(IVE)	-0.50%
에너지섹터 ETF(OIH)	-2.68%	중형 가치주 ETF(IWS)	-0.35%
소매업체 ETF(XRT)	-1.56%	소형 가치주 ETF(IWN)	-0.37%
금융섹터 ETF(XLF)	-0.53%	대형 성장주 ETF(VUG)	-0.44%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0.3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5%	소형 성장주 ETF(IWO)	-0.46%
인터넷업체 ETF(FDN)	-0.50%	배당주 ETF(DVY)	-0.38%
리츠업체 ETF(XLRE)	+0.1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7%
주택건설업체 ETF(XHB)	+0.4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7%
바이오섹터 ETF(IBB)	-1.76%	미국 국채 ETF(IEF)	-0.30%
헬스케어 ETF(XLV)	-0.88%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24%	물가연동채 ETF(TIP)	-0.17%
반도체 ETF(SMH)	-0.65%	Long/short ETF(BTAL)	+0.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1.81	-1.55%	+0.89%	+5.54%
소재	347.76	-0.41%	+2.67%	+5.93%
산업재	635.85	-0.41%	+0.74%	+9.82%
경기소비재	868.61	-0.20%	+0.49%	+4.17%
필수소비재	562.47	+0.28%	+0.43%	+4.32%
헬스케어	1,060.16	-0.88%	+0.43%	+2.27%
금융	439.16	-0.45%	+1.16%	+2.82%
IT	1,221.16	+0.05%	+1.02%	+7.97%
커뮤니케이션	152.68	-0.63%	+0.22%	+3.73%
유틸리티	286.59	+0.75%	+1.71%	+4.95%
부동산	215.87	+0.14%	+0.54%	+6.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7% MSCI 신흥 지수도 0.2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152 계약)에도 불구하고 1.00pt 하락한 287.6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8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1 원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과 유로존 등의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ECB 는 유로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에 비해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장기 대출 등 유동성 공급을 논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로 해석하며 매물 출회 요인 중 하나였다.

물론,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바닥론이 제기되며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수 전체 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종목 장세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도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

2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7.0)이나 예상치(14.0)보다 크게 둔화된 -4.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21.3→-2.4), 출하지수(11.4→-5.3) 등은 위축 되었으나, 고용지수(9.6→14.5), 재고수주(-7.6→3.3) 등은 상향 되었다.

1 월 미국 기존주택매매는 전월(5 백만건) 보다 감소한 494.4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전년 대비로는 8.5% 감소한 수치다. 중간 판매가격은 전월 대비 2.8% 상승했으나, 이는 2012 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12 월 미국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2% 증가 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0.1% 증가 했다. 1 월 미국 경기 진행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 했다.

2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54.9) 보다 둔화된 53.7 로 발표 되었다. 서비스업 PMI 는 전월(54.2) 보다 개선된 56.2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달러, 엔화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EIA 가 지난주 원유 재고에 대해 예상치(+260 만 배럴) 보다 많은 367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히 이어지며 낙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으로 강세로 전환 했다. 한편, 유로화는 ECB 가 의사록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옹커 EU 집행위원장이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호주달러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되는 등 MOU 논의 소식은 반등 요인이었다. 한편, 전일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연준위원들이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 하는 등 지난 1 월 FOMC 회의 당시에 비해 매파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및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02% 하락 했으나 철근은 0.3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96	-0.35	+4.88	Dollar Index	96.613	+0.16	-0.38
브렌트유	67.07	-0.01	+3.87	EUR/USD	1.1334	-0.04	+0.35
금	1,327.80	-1.49	+0.97	USD/JPY	110.71	-0.13	+0.21
은	15.906	-2.30	+1.00	GBP/USD	1.3037	-0.10	+1.83
알루미늄	1,905.00	+1.98	+2.97	USD/CHF	1.0013	+0.10	-0.36
전기동	6,380.00	-0.39	+3.96	AUD/USD	0.7093	-1.00	-0.18
아연	2,683.00	-0.56	+3.55	USD/CAD	1.3222	+0.35	-0.55
옥수수	384.25	+1.25	-0.65	USD/BRL	3.763	+0.87	+1.17
밀	491.00	+1.39	-6.65	USD/CNH	6.7245	+0.08	-0.82
대두	924.25	+0.90	-0.70	USD/KRW	1125.20	+0.15	+0.01
커피	99.45	-1.92	-2.79	USD/KRW NDF1M	1124.88	+0.22	-0.0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90	+4.49	+3.60	스페인	1.200	+0.20	-3.90
한국	2.015	+2.20	+3.50	포르투갈	1.508	-0.80	-6.10
일본	-0.038	-0.50	-2.40	그리스	3.780	+2.00	-6.20
독일	0.127	+2.70	+2.40	이탈리아	2.830	-2.70	+2.90